

## 평 화 선 언

그 끔찍한 지상전이, 과거 이 아름다운 섬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철의 폭풍'이라 불리는, 무수한 포탄이 쏟아졌던 공습과 함포사격에 의해 우리들의 섬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소중한 생명을 수없이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비참한 체험으로부터 전쟁의 어리석음, 생명의 소중함, 평화의 소중함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부터 79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우야화후지(\*오키나와 방언으로 '선조님')는 지금의 오키나와를,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광대한 미군기지의 존재, 미군에 의한 사건·사고, 미군기지에서 비롯하는 환경문제 등 과중한 기지 부담이 지금도 여전히 이 오키나와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른바 '안보 3 문서'에 의해 자위대의 급격한 배치확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참한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과 더불어 우리들 오키나와현민은 커다란 불안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오키나와의 현주소는 원통한 마음을 남긴 채 희생된 영령을 달랠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 오키나와의 일본 본토 복귀에 앞서,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일본과 아시아 대륙, 동남아시아, 나아가 널리 태평양권 여러 국가와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무대로 삼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소중한 생명을 바친 많은 분의 영혼을 기리는 길이며 오키나와의 조국 복귀를 기뻐하는 우리들 국민의 맹세여야만 한다."라는 성명을 내었습니다.

이 성명을 상기하고, 오키나와현민이 바라는, 평화의 섬의 실현을 위해서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후텐마 비행장의 위험성을 조속히 제거, 헤노코 신기지 건설 단념 등 기지 문제의 조기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아도, 여전히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세 등 전쟁이라는 과오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미중대립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 대만과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 등, 자국의 군사 증강에 따른 억지력 강화가 오히려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는 한 편, 경제면에서의 긴밀한 관계가 병존하는 등 안전보장 환경이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각 나라, 각 지역에 필요한 것은 각자의 가치관 차이를 서로 인정하며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포섭성과 관용성에 기반한 평화적 외교·대화와 같은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들 오키나와현민은 만국진량万国津梁의 정신으로 인접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온 역사가 있으며, 또한 “누치 두 타카라(목숨은 곧 보물)” “유이마루(서로 돕는 마음)” “치무구쿠루(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등 다양한 가치관 수용, 상부상조와 같은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의서”, “평화의 초석”, “오키나와 평화상”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를 바라는 “오키나와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세계 항구 평화는 오키나와현민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저는 오키나와가 국제평화창조거점이 되어 만국진량의 정신을 토대로 “오키나와의 마음”을 국내외로 알려 세계 평화 구축과 상호발전, 국제적 과제의 해결을 향해 지역외교를 전개해 가는 것이 지역의 긴장 완화와 신뢰 양성에 공헌해, 세계의 항구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엔 피스 메신저이자 자연보호와 인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적인 환경 활동가 제인 구달 씨는 “우리들의 행동은 매일 반드시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차이’를 낳으며, 어떤 ‘차이’를 낳을 것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행동은 비록 미약할지언정,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으며,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부조리한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미약하더라도 목소리를 내어, 다시 일어나는 용기,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정신문화를 통해 타인을 존경하고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핵무기 폐지, 전쟁 포기, 항구 평화 확립을 위해 함께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해 나갑시다.

**< 시마쿠투바(오키나와 섬 말) 에센스 > (한국어 역)**

*우리들의 선조께 자랑스러운 오키나와로 있고자 한다.*

*우리들은 인접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이 세계 항구 평화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오늘, 위령의 날을 맞아 희생되신 모든 영령에 대해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함과 더불어, 전쟁으로 이어지는 모든 행위를 부정하며, 인간의 존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 안보"를 비롯해, 보다 높은 차원의 평화를 바라며 이 섬이 세계 항구 평화에 공헌하는 국제평화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여기서 선언합니다.

**2024 년 6 월 23 일**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